

예술단체와 고등교육기관의 협업을 통한 전문무용수 직업 전환 지원

: 퍼시픽 노스웨스트 발레단(PNB)과 시애틀 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장 응 조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전문무용수 직업전환에 관한 기존연구

1. 1982년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콘퍼런스와 CTFD의 설립
2. aDvANCE Project
3. 2004년 모나코 선언

III. PNB와 시애틀 대학교의 협업

1. PNB의 Second Stage
2. 협업을 통한 학위취득
3. 강점
4. 한계와 개선점

VI. 결론

참고문헌

* 시애틀대학교 공연예술 및 예술리더십학과 조교수

논문투고일 : 2015.07.30.

논문심사일 : 2015.08.17.

게재확정일 : 2015.09.01.

Partnership between arts organization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to support dancers' career transition

98 : in case of Pacific Northwest Ballet and Seattle University

Chang, Woong-jo
Seattle University

Despite their years of hard training and dedication, professional dancers reach the end of their performing career in their early- to mid-30s, which usually entails economic,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hallenges, among others, for them. This research examines the support system for professional dancers' career transition before and following their early retirement. The data is gathered through documentations and interviews with key persons concerned including administrators and faculty members as well as professional dancers in a case study of Second Stage, a partnership program between Pacific Northwest Ballet (PNB) and Seattle University to support PNB dancers' successful career transition after retirement. The findings show an arts organization's (e.g., PNB) partnership with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e.g., SU) can provide valuable opportunities both for the professional artists and the students. Participating dancers stated that they definitely appreciated not only the educational and economic benefits, but also the psychological support from the program, which gave them a feeling of being prepared for their future career. Suggestions were made regarding procedural restrictions that come with a large educational institution, in order not to discourage the participating dancers.

key words > professional dancer, retirement, career transition, partnership,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주요어 > 전문무용수, 은퇴, 직업전환, 협업, 고등교육기관

I. 서론

무용분야, 특히 서양무용은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은퇴시기가 매우 빠른 편이다. 은퇴 후의 30대 초중반의 전문 무용수들은 직업전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Pickman, A. J., 1987:200; Greben, S.E., 2002:14-15; Upper, N., 2004:7-8), 이에 유럽을 중심으로 몇몇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전문무용수들의 직업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1993년에는 국제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지원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IOTPD)가 설립되어 다양한 지원방법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적용 사례 등을 나누고 격려해 왔는데, 한국에서도 2008년에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전문무용수들의 직업전환을 돕고 있다.

지난 5월 30일에는 IOTPD와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전문무용수, 새로운 내일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무용수들의 직업전환에 관한 국내외 성공사례들을 소개하고 토론하였다.¹⁾ 그러나 이번 IOTPD의 발제자들은 대부분 유럽국가 출신이었는데, 예술 관련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중앙정부기구가 있는 유럽각국과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중앙정부기구가 없는 미국은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에 관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IOTPD에는 뉴욕시에 본부를 둔 ‘무용수를 위한 직업전환’(Career Transition For Dancers, CTFD)이라는 단체가 창립회원으로 있지만, CTFD는 예산의 대부분을 개인이나 기업 기부금으로 조달하고 정부로부터는 전체 예산의 약 2.4%에 불과한 지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 단체 non-profit organization이다.²⁾

일찍부터 시민들의 문화 예술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은 미국은, 그러나 비영리 단체라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개인들과 기업들의 후원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해왔고, 이것이 관객개발audience development의 중요한 부분인 기금조성fundraising에 대한 각종 세부적인 논의와 기술들로 발전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에 관한 지원 방안도 CTFD

1) 2015년 IOTPD의 심포지엄에는 Paul Bronkhorst IOTPD 회장을 비롯하여 Sabrina Sadowska 독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센터장, Pierre-Marie Quéré 마르세이유 국립무용학교/ESDC 로젤라 하이타워 국립무용학교 사무처장,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허선혜 중의학 침술사/스웨디시 마사지트레이너, 영국에서 활동하는 Leanne Benjamin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네덜란드의 Paul Waarts 판사 등이 참석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각 국의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사례를 선보였다(IOTPD 및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2) 2013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한 세금보고서(990양식) 기준으로 전체 예산 \$1,412,862 중 \$34,293만이 뉴욕시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금이다.

등의 비영리단체나 각 지역의 예술옹호단체 혹은 관련재단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렇게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음으로써, 미국에서는 위로부터의 지원보다는 예술생태계속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아래로부터의 지원방법들이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지원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전문무용수들의 직업전환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특별히 무용단체와 인근 지역 고등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방안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의 사례연구 대상은 미국 워싱턴 주(州) 시애틀에 소재한 퍼시픽 노스웨스트 발레단(Pacific Northwest Ballet, PNB)과 시애틀 대학교 간의 협업을 통해 운영되는 **Second Stage**의 학사학위 취득 프로그램이다.

PNB와 시애틀 대학교의 협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위하여, 필자는 2012년부터 프로그램 내의 수업에 참관하고 오리엔테이션 등의 관련행사를 관찰하며, 참여 교수, 행정직원 및 학생들과 동문의 경험과 반응을 인터뷰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본 협업과 관련하여 PNB와 시애틀 대학교에서 생산한 광고 및 보도자료 등의 공개된 문서를 비롯하여 예산 및 결산 등의 재정문서와 같은 내부문서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PNB와 시애틀 대학교가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는 전문무용수들의 직업전환을 지원하는지 각각도로 살펴보았다.

II. 전문무용수 직업전환에 관한 기존연구

1. 1982년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콘퍼런스와 CTFD의 설립

다른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보다 매우 이른 시기에 은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전문 무용수들의 경우, 은퇴 후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은 사실 예술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거의 없는 미국에서 많은 예술가들과 관련 학자들의 고민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미 1970년대 초부터 전문무용수의 은퇴 후 직업전환에 대한 고민이 무용현장에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이에 좀 더 구체적인 학문적 관심이 더해지기 시작하였다(예를 들어 Deborah, J., 1975; Kenneth, C., 1972; Marcia, B. S., 1976).

1979년에는 여성 전문무용수들이 30대 즈음에 겪는 스트레스에 관하여 인터뷰를 통한 대규모 정성적 연구가 있었고, 이 연구는 1987년에 새로운 샘플을 대상으로 다시 수행되어 1998년과 1989년에 발표되었다. Lee, S. A.(1988 & 1989)의 이 연구는 특히 발레 세계를 하나의 사회 시스템으로 보고, 성인계 발이론adult development theory을 기반으로 나이에 따른 전문무용수들의 단계적 변화를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된다. 연구 결과, 30대를 전후하여 여성 전문무용수들이 젊음,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왜곡된 여성성이 과도하게 강조된 예술성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자존감 상실 등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상과 노화에 대한 과도한 걱정에 힘들어 하고 있었으며 발레단을 떠난 후, 즉 은퇴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함이 이들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고, 결국 이들의 공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Lee, S. A., 1988:29-30).

Lee, S. A.는 무용수들이 스스로 은퇴 후 대안을 찾으려할지라도, 이들의 공연 시즌 및 리허설 일정 등이 이러한 시도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미국 내 전문무용수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 줄 만한 지원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결과적으로 부족한 지원 시스템이 무용계의 전체적인 예술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Lee, S. A., 1989:75).

그러나 Lee, S. A.의 1979년과 1987년 조사결과 비교연구는 1987년의 무용수들이 은퇴 후 대안직업에 대한 옵션이 예전(1978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즉 무용비평가, 물리치료사, 무용치료사, 무용단체경영인과 같은 직업들이 은퇴 후 전문 무용수들의 대안직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연구대상이 된 전문무용수들 사이에 보다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Lee,S.A., 1988: 30) 이러한 무용수들의 인식변화는 1970년대 말부터 무용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벌어졌던 논의 및 토론회 등의 힘이 컸다. 예를 들어 댄스유에스에이(DanceUSA)와 같은 미국 내 무용관련협회들에서도 무용수의 직업전환에 대한 워크샵과 토론회를 자주 개최해왔는데(Lee, S. A., 1988:31), 특히 1982년에 개최된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콘퍼런스’(Conference on Career Transition for Dancers)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82년 6월 8일 뉴욕의 링컨센터에서 개최된 이 콘퍼런스는 미국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과 미국노동총연맹-산별조합회의(AFL-CIO) 산하의 노동 연구소(Labor Institute for Human Enrichment), 그리고 전미 배우조합(Actors’ Equity Association, AEA)을 비롯한 많은 지원 재단들과 노동조합들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콘퍼런스 개최 후에 링컨센터에서 출간한 보고서, **After the Dance:**

A report from 1982 Conference on Career Transition for Dancers를 보면 이 때 이미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에 관한 대부분의 실정과 문제가 토의되었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되었다(Weston, E.H., 1982 참고). 이 토론회의 결과로 1985년에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비영리 단체 CTFD가 설립되었다(Baumol, W.J., Jeffri, J., & Throsby, D., 2004:40).

CTFD는 원래 미국배우기금(Actor's Fund of America)의 한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가 1988년도에 이르러 독립된 비영리기관(501(c)3)로 전환되었다. 뉴욕 본사와 LA 및 시카고 지사, 그리고 전국순회 워크숍(National Outreach Project, NOP)을 통하여 2010년까지 은퇴를 앞두고거나 이미 은퇴한 4600여명의 전문무용수들에게 400만 달러에 상응하는 46,000 여 시간의 개인 및 그룹 직업상담을 제공하여 왔으며, 무용 교육 사업 및 무용관련 단체들의 각종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300만 달러를 지원해 왔다(BWW News Desk, 2010). 본사와 지사에서는 지역의 도서관이나 관련 비영리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무용수들에게 무료로 취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법이나 링크드인(LinkedIn)과 같은 여러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법 등의 교육을 워크숍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매년 미국 내 주요 도시를 선정하여 이틀 동안 각 지역의 무용수들에게 직업상담을 해주는 NOP 행사는 많은 무용수들의 직업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감정상태 관리 등의 심리상담도 함께 이루어져 호평을 받아 왔다. 현재까지 30여개 도시에서 개최되었다(CTFD 홈페이지 참고).

CTFD의 노력에 힘입어 미국의 많은 무용단체들과 대학교를 비롯한 고등교육기관들도 무용수들의 은퇴 후 직업전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주요 발레 단체들이 인근 대학교들의 수업 이수 비용을 지원하여, 무용수들이 공연활동을 하면서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Hamilton, L. H., Bristow, E., 그리고 Byars, M.(2002)은 그들의 연구논문, “College Programs for Professional Ballet Dancers: The Impact on Career Transition”에서 1988년부터 시작된 뉴욕 포담대학교(Fordham University)의 무용수를 위한 자유예술전공 프로그램(Dancers' Liberal Arts Program)을 통해 교육을 받은 69명의 무용수들 중 66명의 성적표를 분석하고 편지와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은퇴와 대학 수업이수 이후의 그들의 현황을 추적하였는데, 응답한 은퇴 무용수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³⁾ 이러한 대학 수업 이수 프로그램이 그들의 은퇴 후 직업전환에 매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 주었다(Hamilton, L. H., Bristow, E., & Byars, M., 2002:22-23). 본고에서 사례연구로 초점을 맞춘 PNB와 시애틀 대학교의 협업 프로그램은 이러한 대학수업 이수

3) 89%의 응답자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전문 무용수들의 학위취득을 목표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2. aDvANCE Project

2004년에는 1993년에 발족한 IOTPD의 주도로 이뤄진 어드밴스 프로젝트(aDvANCE Project)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어 더욱 광범위하면서도 세부적인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호주, 스위스 그리고 미국의 무용수들의 직업전환에 대한 현황을 설문조사와 무용계 각계각층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무용전문가들을 통한 장기관찰을 통하여 조사하였는데, 당시까지의 무용수들의 직업전환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많은 개선점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 우선 호주와 스위스 그리고 미국에서 행해진 무용수 설문조사는 무용수들의 3분의 2 혹은 4분의 3이 여성이며, 여전히 은퇴전의 무용수는 40대까지 현직 무용수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상 은퇴한 무용수들의 경험은 이와 달리 일반적으로 30대 초반에서 중반에 은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현직 무용수들의 대부분(미국: 98%, 스위스: 86%, 호주: 93%)이 조기은퇴에 따른 어려움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대부분의 은퇴한 무용수들은 사실상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또한 현직 무용수의 많은 수가 은퇴 후 무용과 관련하여 일하고 싶어 했지만(미국: 26%, 스위스: 52%, 호주: 48%), 은퇴한 무용수들이 실질적으로 갖는 무용관련 직업은 대부분 일반인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교습에 국한되어 있었다. 주목할 것은 CTFD와 같은 무용수 직업전환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은 무용수들의 경우에는 약 10에서 15%만이 무용관련 직업을 갖게 되었고, 다른 분야에서 직업을 찾은 은퇴 무용수들이 상당히 성공적인 직업전환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무용수들의 직업전환에 있어 재정적인 문제는 현직과 은퇴한 무용수를 막론하고 가장 큰 이슈였다. CTFD와 같은 비영리 단체의 지원만으로는 재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반응이었다. 또한 조사결과 현직에 있을 때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에 적절한 지원이 없을 경우, 직업전환을 이루고 난 후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점은 아마도 많은 현직 무용수들이 은퇴 이후의 직업전환에 대한 고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충분치 못한 정보 혹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적절한 준비

를 스스로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대부분의 현직 무용수들이 은퇴 이후의 직업에서 얻게 될 수입과 그 직업의 지속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Baumol, W. J., Jeffri, J., & Throsby, D., 2004:53-64).

Baumol, W. J. 등(2004)은 결론적으로 IOTPD에 속해 있는 무용수 직업전환을 위한 지원센터들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 현직 무용수들에게 무용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분야에서도 재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저자들이 꼽은 가장 큰 발견점은 이러한 지원센터들을 거쳐 간 수많은 전직 무용수들이 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CTFD와 같은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한 무용수들이 더욱 많이 포함될 앞서의 설문조사와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무용수 직업전환 지원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어드밴스 프로젝트의 저자들은 이러한 지원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안하며, 정부의 부족한 지원은 무용수 개인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인적 자원의 낭비라는 인식의 제고를 촉구하였다. 저자들이 제시한 연구의 결론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언은 늦은 나이까지 전문무용수로 남지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보지 말고 조기 은퇴 후의 직업전환을 무용예술가들에게 있어 당연한 인생의 한 절차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인식의 변화이다(Baumol, W. J., Jeffri, J., & Throsby, D., 2004:65-70).

3. 2004년 모나코 선언

어드밴스 프로젝트의 연구를 바탕으로 2004년 12월 IOTPD 주최로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세계 16개국에서 온 전현직 무용수들과 무용관련 학자들 그리고 문화예술행정가들이 함께 모여 앞선 연구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하였으며, 그 결과 이른바 모나코 선언(The aDvANCE Project Declaration Of Monaco)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이 선언에서 참가자들은 앞서 살핀 무용수들의 은퇴이후 직업전환이 당연한 절차라는 개인 및 사회의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협업을 통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8개 조의 세부항목을 결의하였다(Jeffri, J., 2005:355).

모나코 선언 이후, 전문무용수들의 직업전환에 관한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 좀 더 성장하였다. 즉 2004년 모나코 콘퍼런스에서 논의되고 정리되었던

내용들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좀 더 다양한 나라들의 다양한 무용수와 무용단체들의 사례연구가 후속, 뒷받침되면서 무용수들의 심리변화, 경제적 상황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변화 등을 연구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 등의 다양한 대처방안을 제안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Wainwright, S.**와 **Turner, B.**는 무용수들의 신체적 변화 즉 노화에 따른 부상을(Wainwright, S. & Turner, B., 2006), **Bennett, D.**는 무용을 배우는 학생들의 졸업 후 겪는 다양한 직업관련 경험을(Bennett, 2006 & 2008), **Harper, S.**는 발레단과 같은 주요 무용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무용수들과 독립무용수들의 비교연구를 통한 지원 정책 방안을(Harper, S., 2012), **Cahalan, R.**과 **O'Sullivan, K.**는 전문무용수들의 건강과 복지에 초점 맞춘 직업만족도를(Cahalan & O'Sullivan, 2013), **Bulkley, H.**는 무용생태계 속에서 무용수들의 직업전환을 돕기 위한 각종 단체 및 프로그램을(Bulkley, H., 2014) 주제로 연구 논문 및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다.

특히 2004년 어드밴스 프로젝트 연구보고서의 3명의 주저자 중 **Jeffri, J.**와 **Throsby, D.**는 이어진 2006년 논문에서 좀 더 세부적인 양적 데이터를 인용하여 무용수들의 전반적인 직업전환에 대한 인식과 직업전환시 겪는 어려움을 심도 깊게 논의함과 동시에 이러한 무용수들의 직업전환에 관한 논의가 비단 무용계에서만 문제가 아니며 크게 보면, 예술계 전체,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하나의 커리어 라인을 따라 성공에 이르는 경우는 점점 드물게 되고, 대부분의 노동자(예술가를 포함한)들에게 있어 이제 안정적인 평생직장보다는 다수의 직업이 당연시 되었다는 것이다. **Jeffri, J.**와 **Throsby, D.**는 또한 예술계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직업에 대한 개념전환이 늦었다고 진단한다(Jeffri, J. & Throsby, D., 2006:61).

Roncaglia, I.도 현대사회 어느 분야에서나 직업전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그 뜻이 모호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 은퇴라는 하나의 ‘과정’을 전무무용수 14명과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한 뒤, ‘은퇴이유’, ‘지원의 원천과 타입’, ‘감정적 상태’, ‘대처 단계’, 그리고 ‘유동적인 해결방법’의 5가지 주제를 통하여 발레 무용수의 직업전환 모델을 제시하고, 은퇴를 앞둔 무용수들의 직업상당 등에 이 모델을 활용하여, 단계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Roncaglia, J., 2006: 187-192). **Roncaglia, I.**는 2년 후, 앞서 제시한 5가지 주제중 감정적 상태와 관련한 논의를 더욱 보강하여 직업전환 중 겪을 수 있는 감정상태를 자기통제력 상실감 *feeling of loss of control*, 자기의심 *self-doubts*, 방향성 상실

disorientation/sense of loss 등을 거쳐 중국적으로 열린 마음 openness으로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 무용수들의 성공적 직업전환의 중요한 열쇠라고 결론짓는다(Roncaglia, J., 2008:57).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전문무용수들의 직업전환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크게 1982년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콘퍼런스 개최와 CFTD의 설립 전후, 어드밴스 프로젝트 연구 전후, 그리고 2004년 모나코 선언 이후의 연구 성과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어드밴스 프로젝트의 보고서와 공저자들의 후속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제언 중, 무용단체와 인근 지역 고등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문무용수들의 직업전환 지원방안을 시애틀에 소재한 PNB 발레단과 시애틀 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사학위 취득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개별 무용단체와 인근 지역 고등교육기관과의 협업이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는 전문무용수들의 직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Ⅲ. PNB와 시애틀 대학교의 협업

1. PNB의 Second Stage

시애틀의 퍼시픽 노스웨스트 발레단(Pacific Northwest Ballet, PNB)은 1972년에 설립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발레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예술단체가 미국에서 4번째로 많은 대도시 시애틀에서 연간 예산을 기준으로 6번째로 큰 단체로 성장하였으며, 교향악, 오페라 등의 고전 예술 단체들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에도 여전히 탄탄한 관객 및 후원 그룹의 도움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Forshee, S., 2015:A4). 2015년 7월 현재 42명의 경영진 및 스태프, 그리고 131명의 이사회원과 400 여명의 봉사단원과 수석 12명 및 견습 4명 포함한 48명의 발레단원이 매 시즌 7-9편의 정기 공연을 왕성하게 올리고 있다(PNB 홈페이지 참고).

미국 내 여느 발레단과 마찬가지로 PNB와 그 후원 그룹은 소속 무용수들이 은퇴 이후 안정적인 직장을 잡기가 힘들어지고, 이에 따라 심리적 경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에 이들을 후원할 방법을 일찍부터 강구해 왔다. 그러던 중 1999년부터 CTFD와 PNB 후원그룹의 협력과 기부금을 바탕으로 은퇴 후 다양한 분야로의 재취업을 돕는 비정기적 교육 프로그램을 세컨드 스테이지 **Second Stage**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PNB 소속 무용수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PNB의 이사회 회원, 전직 PNB 무용수, 그리고 개인 기부자들의 후원을 통하여 **Second Stage**에 대한 기금이 조성되고 확대되면서 현재 PNB 소속의 무용수들은 \$10,000(약 1,170만원)를 PNB 소속 활동기간과 은퇴 후 2년까지 자신의 직업전환을 대비한 교육을 위해 쓸 수 있다. 이 자금 혜택은 PNB로부터 받는 급여와 의료보험과 같은 복지혜택과는 완전히 별도로 운영 및 수여된다. 은퇴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지원금은 총액 \$10,000이 아닌 \$8,000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소속 무용수들이 은퇴 이전부터 직업전환을 준비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한다(Terrie Flaming, Personal Communication, July 29, 2015). 이는 앞서 문헌연구에서 살펴본 바대로 무용수들의 직업전환에 대한 준비가 은퇴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성공적인 직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Second Stage는 앞서 언급한 은퇴이후의 직업전환을 돕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 습득(예를 들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법 등과 같은)을 위한 비정기적 워크샵, 인근의 고등교육기관인 시애틀 대학 및 시애틀 중앙 커뮤니티 칼리지 등을 통한 대학수업 이수, 멘토와의 진로상담, 그리고 은퇴 후의 창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PNB 무용수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학수업 이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멘토들을 통한 정기적인 진로상담이 그들이 직업전환을 준비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심리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Amanda Clark, Personal Communication, July 29, 2015). 멘토는 대부분 직업전환에 성공한 전직 PNB 무용수들, 혹은 기업가,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PNB의 이사회 회원들이다. 이렇게 **Second Stage** 프로그램의 도움을 얻어, PNB의 무용수들은 은퇴 후 성공적으로 필라테스 강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부동산 중개인, 플로리스트 등 다양한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Terrie Flaming, Personal Communication, August 31, 2015).

그러나 2000년대 중반, 그동안 **Second Stage**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던 이사들과 스태프들은 기존의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와 달리, 미국의 발레단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전문무용수들은 고등학교 재학시 뉴욕에 있는 아메리칸 발레 스쿨(The School of American

Ballet, SAB)이나 PNB 발레학교 (PNB school, PNBS)등과 같은 지역 발레단과 연계되어 있는 발레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고등학교 졸업을 즈음하여 전문 발레단에 바로 입단한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전문무용수 활동을 끝냈을 때에 대부분 대학생할 경험이 없고, 따라서 어느 분야에서나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보장하는 대학학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전문무용수의 입장에서 대학교 학위는 다른 어떤 자격증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 기존 **Second Stage** 프로그램의 인근 고등교육기관의 제한적인 수업이수는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뽀뽀한 공연과 리허설 일정 등으로 참석할 수 있는 수업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수업 이상을 등록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개별 수업만을 듣는 경우 학위 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채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릴뿐더러, 빠른 시간 내에 학위를 받기 위해 여러 수업을 등록한다 하더라도 **Second Stage**를 통해 지원되는 \$10,000이라는 지원금은 미국의 일반적인 4년제 대학교의 한 학기 등록금조차 되지 못하는 금액이다.

앞서 소개한 Hamilton, L. 등의 연구에서 저자들은 협력 고등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듣고자 하는 무용수들에게 있어 수업을 참관하는 데에 '무용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다는 불안감' (53%), '부상경력' (62%) 그리고 '등록금 할인 여부' (53%) 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Hamilton et al., 2002: 22).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심리적인 요인을 제하면, 결국 비싼 등록금이 대학을 등록하는 데에 무용수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

2. 협업을 통한 학위취득

이렇게 대학교 학위취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금전적 제약 때문에 PNB의 **Second Stage** 프로그램에서는 소속 무용수들의 학위취득을 위한 지원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3년 당시 **Second Stage** 프로그램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PNB의 이사 Rick Redman이, 같은 기간 시애틀 대학교의 이사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던 것을 연유로 PNB와 시애틀 대학교의 협업을 통해 PNB 무용수들이 시애틀 대학교의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PNB 운영진과 당시 시애틀 대학교의 인문과학대학(the College of

⁴⁾ 무용경력이 10년 이하의 무용수들의 경우는 이 등록금 할인 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 무려 90%의 응답자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답하였다(Hamilton et al., 2002: 22).

Arts and Sciences)의 학장이었던 **Wallace Loh**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고, **PNB**의 무용수들이 더욱 용이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시애틀 대학교의 수업이 **PNB**가 상주하고 있는 시애틀 센터(Seattle Center)내 펠프스 센터(Phelps Center)에서 열리기 시작하였다. 다만 2009년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적 제약 속에 학위의 전공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특정분야의 학사학위를 목표로 한 과목들을 열 수는 없었으며, 인문과학대학 내의 자유전공과목들에 해당하는 개론 수준의 강의만을 한 학기에 한 수업씩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이 협업을 통해 **PNB** 무용수들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혜택은 거의 90%가 넘는 수업료 면제였다. 시애틀대학교는 시애틀 센터에서 열리는 강의를 하나의 지역사회참여community outreach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수업을 받는 **PNB** 무용수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여 이들이 보통 5학점단위 credit의 한 수업 당 약 \$400가 조금 넘는 등록금을 내고 수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수업료가 가장 저렴한 인근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업료(보통 4년제 대학교의 반값)에 비해서도 파격적으로 낮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한 대학의 수업이 다른 대학의 강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점 이관에 상당히 너그러운 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등록금이 비싼 4년제 대학을 다니기 보다는 보통 지역사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2년 혹은 3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듣고, 그곳에서 취득한 학점단위를 인정받아 다시 4년제 대학교에 편입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대학교내의 개별수업의 학점 이수와 달리, 학점이관이나 편입 등을 통하여 특정분야의 학사학위를 최종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입학기준에 맞는 수학능력을 검증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신입생으로 1학년부턴 입학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SAT**(Scholastic Aptitude Test)와 같은 수학능력검증시험 점수와 고등학교 재학시절의 성적, 그리고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입학이 결정되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입학방법을 거치지 않고 편입 등 여타 방법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보통 Non-traditional students라 칭한다)의 경우에는 개별 학과가 인정하는 전공 관련 수업의 이수여부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이전, 다양한 분야의 개론 수업의 이수는 **PNB** 무용수들에게 수업장소의 접근이 용이하고 수업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다는 큰 장점이 있었으나, 여전히 최종 학사 학위 수여를 위해서는 수업 내용적으로나 법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 당시 시애틀 대학교의 인문과학대학장이었던 **Wallace Loh**의 주도로 **Second Stage**를 통해 개설되는 강의를 특정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수업들로 구성하기로 하였고, 당시 **PNB** 소속 무용수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수의

무용수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 예술경영 관련 학사학위를 목표로 하는 전공수업들을 시애틀 센터에서 개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 시애틀대학교의 예술경영 관련 수업들은 2007년부터 시작된 예술리더십 arts leadership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했고, 학부에는 따로 예술경영관련 전공과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예술리더십 프로그램 디렉터였던 Maifeld, K.가 시애틀 대학교의 PNB 협업 디렉터인 Jennifer Schultz의 행정적 지원 하에 예술경영관련 학부전공 설치를 위한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PNB에서 열리는 시애틀 대학교 수업들을 선정하고 해당 강의의 강사진을 구성하는 등 전반적인 커리큘럼 운영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여러 가지 행정적, 법적 제약과 시간적,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중간에 학부전공설치가 좌절될 위험도 있었지만, PNB의 Second Stage 프로그램 디렉터인 Terrie Flaming과 시애틀 대학 측의 디렉터인 Jennifer Schultz, 그리고 시애틀 대학교의 예술리더십 전공 디렉터인 Maifeld, K.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상호연락과 협동이 결실을 맺어 2014년에는 시애틀 대학교의 이사회로부터 학부전공 설치 승인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2015년 6월 11일에 서북미 대학위원회(Northwest Commission on Colleges and Universities, NWCCU)로부터 학부전공 공식승인을 받기에 이르러, 바로 이를 뒤인 6월 15일, 시애틀대학교의 2015년 졸업식에서 예술리더십 학부전공의 첫 졸업생인 Kiyon Gaines를 배출하게 되었다.

표 1. 시애틀 대학교 예술리더십 학사학위 전공 커리큘럼

Call No.	Course Title	Credits
ARTL 1xx	Introduction to Arts Leadership	5
ARTL 2xx	Financial Management in the Arts	5
ARTL 2xx	Marketing the Arts	5
ARTL 3xx	Law and the Arts	5
ARTL 3xx	Resource Development for Arts Organizations	5
ARTL 4xx	Arts Entrepreneurship	5
ARTL 4xx	Public Policy & Advocacy in the Arts	5
ARTL, THTR, MUSC, or ART Electives, 300-400 level		10
Choose 3 of the following:		15
ARTL 2xx	Persuasive Communication for Managers	
ARTL 3xx	Managing Human Resources	
ARTL 3xx	Building Leadership Skills	
ARTL 3xx	Managerial Economics	
ARTL 3xx	Special Topics in Arts Leadership	
ARTL 4xx	Arts Leadership Internship	
Total Credits in Arts Leadership		60

(Maifeld, K., 2013)

시애틀대학교 이사회와 서북미대학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술리더십 전공 학사학위에 대한 세부 커리큘럼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매 학기quarter에 한 번씩 열리는 수업은 전형적으로 5학점단위이며, 매주 2번 7:15pm-9:30pm 사이에 PNB가 상주하는 시애틀 센터 내의 펠프스 센터에서 이뤄진다. PNB 무용수들은 예술리더십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 <표 1>에서 볼 수 있는 총 60학점단위의 전공수업들을 수강해야 한다. 시애틀 대학교는 학사학위취득을 위해 총 180학점단위의 수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PNB 무용수들은 일반적으로 시애틀 인근의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수업들의 학점단위들을 이관하여 180학점단위를 충족시키고 있다. 평균적으로 PNB의 Second Stage 프로그램을 통해 단원들은 10년 정도의 기간 안에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관계자들은 PNB의 전문무용수들이 일반적으로 10대 후반에 입단하여 30대 초중반에 은퇴하고 은퇴 후 2년까지 Second Stage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10년의 기간은 한 학기에 수업하나를 듣는 것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Maifeld, K., Personal Communication, July 18, 2015).

3. 강점

PNB와 시애틀 대학교의 협업에 의해 운영되는 Second Stage의 시애틀 대학교 예술리더십 학위취득 프로그램은 우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무용수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그 강점을 엿볼 수 있다. 예술리더십 전공으로 처음 졸업하는 Kiyon Gaines는 원래 PNB와 시애틀 대학교가 처음으로 협업을 통해 학위 수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을 때인 2003년부터 수업을 듣기 시작하였으니,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완전히 승인된 2015년까지의 PNB와 시애틀 대학교의 크고 작은 정책의 조정 및 변화와 한 학기에 수업을 하나씩 수강할 수밖에 없는 제약으로 인하여, 학사학위를 받는 데에 12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2015년 6월 졸업과 동시에 PNB 현직 무용수에서 은퇴를 선언한 Gaines⁵⁾ 그러나 인터뷰에서 시애틀 대학교의 수업을 듣는 것이 은퇴 후에 무용관련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자신에게 실질적인 예술경영 관련 지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했지만, 정작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수업을 통해 구체적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이 4-5여 년 전부터 자주 있었던 부상으로 인한 은퇴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오히려 PNB에서의 공연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⁵⁾ 현재 Gaines는 PNB의 안무가와 PNB 발레학교의 강사로 활동하며 시애틀에서 소규모 무용단 설립을 준비 중이다.

고 털어 놓았다(Kiyon Gaines, Personal Communication, July 29, 2015).

앞서도 언급했듯, PNB 무용수들이 꼽는 **Second Stage** 프로그램을 통한 시애틀 대학교의 학위취득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한 수업 당 90%가 넘는 장학금을 시애틀 대학교로부터 받고, PNB 재직 기간 이후 2년까지 PNB와 그 후원그룹으로부터 \$10,000을 제공받음으로써 제대로 된 학사학위를 받기 위한 미국의 높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수업장소가 PNB 무용수들이 연습하고 공연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일과 외의 시간을 낭비 없이 수업과 수업준비에 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었다.

또한 시애틀 센터 내에서 열리는 과목들은 현재 시애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수강이 가능하다. 2014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펄프스 센터에서 예술경영개론 수업을 들었던 미술사학과 학생(당시 4학년)의 증언에 따르면, 대학교 캠퍼스 밖에서 실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가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강사들뿐만 아니라 PNB의 현직 무용수들에게서도 더욱 실질적인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들의 현장경험을 통하여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였다고 증언하였다(Kelsey Cook, Personal Communication, May 5, 2014). 이 학생은 이 같은 좋은 경험으로 동료학생들에게도 PNB의 펄프스센터에서 열리는 수업을 추천한다고 하였다. 이는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증언에서도 확인 되는데, 예술마케팅marketing the arts을 가르치는 겸임교수 Karen Bystrom은 PNB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에 적잖이 놀랐으며, 그들의 적극적 참여가 시애틀대학교 본 캠퍼스에서 셔틀 버스를 타고 수강하러 온 학생들을 좋은 방향으로 자극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 하였다(Bystrom, 2013; Maifeld, 2013 재인용). 즉 PNB와 시애틀대학교의 **Second Stage** 협업 프로그램이 PNB의 무용수뿐만 아니라, 시애틀 대학교의 재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실천적인 학문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에 관하여서도 이러한 PNB와 시애틀 대학교의 협업 프로그램은 매우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PNB가 소속 전문무용수들에게 제공하는 \$10,000는 미국노동총연맹-산별조합회의(AFL-CIO)와 CTFD가 제공하는 거의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적은 지원금 외에 기본적으로 PNB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후원그룹들에 속해 있는 개인들의 기부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다. 2015년 현재까지 **Second Stage**는 135명의 전현직 소속 무용수들에게 \$430,000을 제공해 왔다(PNB 홈페이지 참고).

강의와 학위를 제공하는 시애틀 대학교로서도 실질적인 비용을 따져보면, 장기적으로는 시애틀 지역예술계에 대한 참여와 나눔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기존 시애틀 대학교의 재학생들에게도 특별한 수업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단기적으로도 직접적인 재정적 손해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의를 개설하기 위한 행정비용을 제외한다면(예를 들어 이 협업프로그램을 결과적으로 가능케 했던 시애틀대학 예술리더십 프로그램 디렉터 Maifeld, K의 활동비와 같은) 한 강의 당 드는 직접비용은 한 학기 수업 강사로 \$4,250과 주차료와 같은 기타 잡비 \$300 등 총 \$4,550 (Maifeld, 2013) 정도이다. 즉 수업하나로 벌어들이는 직접 수입인 PNB 무용수 5-6명의 할인된 수업료(한명 당 \$400정도)와 7-8명 정도의 시애틀 대학교 재학생들의 전액 수업료를 감안하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4. 한계와 개선점

그러나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PNB와 시애틀대학교의 협업 프로그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강점과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한계점과 개선해야할 지점들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우선 시애틀 대학교의 대학조직 특유의 관료성에 의한 느린 의사결정이, 실천적인 지식을 배우고자하는 PNB의 무용수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고자 따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 협업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학내 관계자들의 동력과 의지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학위의 명칭문제만으로 대학 이사회 승인을 받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면지⁶⁾, NWCCU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는 데까지 또다시 1년이 넘게 걸리는 등, 학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에 보이지 않는 절차적, 행정적 제약들이 프로그램의 수월한 기획 및 운영을 방해하고 있었다. 대학 이사회와 NWCCU의 승인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Kiyon Gaines보다 일년 먼저 (2014년) 졸업한 Amanda Clark는 결국 원하던 예술리더십 학위를 받지 못하고 자유예술전공(Bachelor of Arts in Liberal Arts Study)으로 졸업할 수밖에 없었다. Clark는 그러나 현재 대학원에서 국제학(International Studies)을 전공함으로써 결국에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당시에는 졸업마지막 학기까지 자신의 학위취득이 불분명한 것에 많이 당황하였다고 인터뷰에서 토로하였다(Amanda Clark, Personal Communication, July 29, 2015).

시애틀 대학교와 PNB의 Second Stage 협업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을 듣고

⁶⁾ 이사회 제안 최초에는 Bachelor of Arts in Arts Management였으나 몇 번의 반대를 거쳐 최종적으로 Bachelor of Arts in Interdisciplinary Arts specialized in Arts Leadership으로 바뀌어서 승인되었다.

있는 또 다른 익명의 현직 PNB 무용수는 현재 예술 리더십 전공 외에 다른 전공 옵션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학생들 사이에서 있다고 전해주기도 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학교의 전체 입학요건과 관련하여 학내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학위를 보증하는 NWCCU의 승인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 즉 학위존재의 정당성, 안정성,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른 시일 내에 다른 전공을 추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PNB/시애틀 대학교 협업 디렉터인 Jennifer Schultz는 예상하였다. 다만 Schultz는 예술리더십 전공의 성공적인 설치 및 최종 승인에 이은 첫 졸업생의 배출에 힘입어, 이미 Second Stage 프로그램 내에 스포츠 및 운동과학(Sport and Exercise Sciences) 전공 설치에 관한 논의를 학내 관련 교수들과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PNB 무용수들에게 더 많은 전공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인근의 시애틀 중앙 커뮤니티 칼리지(Seattle Central Community College)의 교수들과도 협의에 들어가 앞으로 Second Stage를 PNB, 시애틀 대학교, 그리고 시애틀 중앙 커뮤니티 칼리지 간의 삼자 협업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갈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Jennifer Schultz, Personal Communication, August 5, 2015).

IV. 결론

지금까지 퍼시픽 노스웨스트 발레단(PNB)과 시애틀 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단체와 고등교육기관의 협업을 통한 전문무용수 직업 전환 지원 방안을 살펴보았다. 공인된 학위과정으로 대학 이사회와 상급단체로부터 최종 승인받기 위한 과정에서 혼선과 혼란이 있었으나, 앞서 제기된 몇몇 문제는 지난 6월 NWCCU의 최종승인으로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예술단체와 고등교육기관이 협업하여 학위수여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이와 같은 대학 특유의 복잡한 절차성과 관료성을 미리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꼭 짜인 조직 안에서 아무리 좋은 뜻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여도, 이러한 행정적, 법적 절차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이라면 당연히 따르는 관료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애초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전문

무용수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2003년부터 시작된 PNB와 시애틀 대학교의 학위취득 협업 프로그램은 10여년의 노력 끝에 2015년 현재 두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 한명은 국제학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고, 다른 한명은 현재 PNB에서 안무가와 강사를 겸하며 자신만의 무용단 설립을 준비 중이다. 시애틀 대학에서 학위를 받지 않았더라도, PNB의 전문무용수들은 이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애틀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고, 은퇴 후 필라테스 강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플로리스트,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동하거나, 자신만의 케이터링 사업, 스킨케어 사업⁷⁾ 등을 설립하여 성공적인 직업전환을 모색할 수 있었다.

본 사례는 물론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에서도 무용관련 학과를 나와야만 전문무용수의 길을 보장받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른, 지극히 미국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선보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더하여, 본 논문의 사례에서와 같이 예술단체와 대학교 및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기관이 협업하여 전문무용수들에게 은퇴 전부터 은퇴 후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현직에 있는 전문무용수들도 더욱더 창의적인 예술 창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 강조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대부분 무용과 학사학위 취득 후 전문무용단체에 입단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개별무용단체와 대학원 과정(특히 경영, 홍보, 교육, 보건 등의 특수전문대학원)간의 협업 프로그램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나코 선언이 주창하였듯, 조기 은퇴 후의 직업전환을 무용예술가들에게 있어 당연한 인생의 한 절차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러한 전문무용수들의 직업전환을 적절한 시기에 지원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PNB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예술단체들은 부족한 정부지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와 교류를 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단지 소속 무용수 한명당 \$10,000의 지원금을 가능케 했던 금전적인 기부로 끝나지 않고, PNB의 다양한 전문무용수 후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많은 아이디어와 실질적 운영지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본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결론일 것이다.

⁷⁾ 스킨케어 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조던 사무엘 스킨(Jordan Samuel Skin)의 창업자 조던 사무엘의 성공적인 직업전환 사례는 지역 및 전국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했다(Terrie Flaming, Personal Communication, August 31, 2015).

참고문헌

- Baumol, W. J., Jeffri, J., & Throsby, D. (2004), *Making Changes. Facilitating the Transition of Dancers to Post-Performance Careers* (Research Report, TheaDvANCE Project, New York), Retrieved from <http://www.cpanda.org/data/a00214/changes.pdf>.
- Bennett, D. (2009), "Careers in dance: Beyond performance to the real world of work", *Journal of Dance Education*, 9(1), 27-34.
- _____ (2009), "Academy and the Real World Developing realistic notions of career in the performing arts", *Arts and Humanities in Higher Education*, 8(3), 309-327.
- Bulkley, H. (2014), *The Next Step—Career Transitioning for Professional Ballet Dancer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Oregon).
- BWW News Desk. (2010, August 19), National Outreach Project 9/11. The Broadway World. Retrieved from <http://www.broadwayworld.com/cleveland/article/Career-Transition-For-Dancers-Presents-Their-National-Outreach-Project-911-20100819>
- Cahalan, R., & O'Sullivan, K. (2013), "Job Satisfaction of Professional Irish Dancers: Implications for Performer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Dance Medicine & Science*, 17(4), 139-149.
- Deborah, J. (1975, March 17), "A Dancer's Dilemma: Getting Old.", *Village Voice*. pp. 117-118.
- Forshee, S. (2015, May 8), "Seattle's arts scene fourth-largest behind N.Y., L.A., Chicago", *Puget Sound Business Journal*.
- Greben, S. E. (2002), "Career transitions in professional dancers", *Journal of Dance Medicine & Science*, 6(1), 14-19.
- Hamilton, L. H., Bristow, E., & Byars, M. J. (2002), "College programs for professional ballet dancers: The impact on career transition", *Journal of Dance Medicine & Science*, 6(1), 20-23.
- Harper, S. (2012), *A critical comparative study of career transition policy, practice and experiences for ballet company dancers and musical theatre independent danc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irmingham).
- Jeffri, J. (2005), "After the ball is over: Career transition for dancers around the world",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1(3), 341-355.
- Jeffri, J., & Throsby, D. (2006), "Life after dance: Career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Management*, 8(3), 54-63.
- Kenneth, C. (1972), *The Artist Grows Ol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S. A. (1988), "Is it the last dance? Ballet dancers at age 30",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3(1), 27-31.
- _____ (1989), "Retirement and the Professional Ballet Dancer at Age 30: Women at a Turning Point", *Dance: Current Selected Research*. New York, AMS Press, 1, 63-76.
- Maifeld, K. (2013, March 8), *Dancers into Arts Managers: Case Study of Pacific Northwest Ballet*, Paper presented at 2013 Annual Conference of Association of Arts Administration Educators, University of New Orleans, New Orleans, LA, USA.
- Marcia B. S. (1976), "Growing Old in the Land of the Young," *Hudson Review*, 24(2), 249-254.
- Pickman, A. J. (1987), "Career transitions for dancers: A counselor'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6(4), 200-201.
- Roncaglia, I. (2006), "Retirement as a career transition in ballet danc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6, 181-193.

- Roncaglia, I. (2008), "The ballet dancing profession: a career transition model",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7(1), 50-59.
- Upper, N. (2004), *Ballet dancers in career transition: Sixteen success stories*, McFarland.
- Wainwright, S. P. & Turner, B. S. (2006), "Just crumbling to bits'? An exploration of the body, ageing, injury and career in classical ballet dancers", *Sociology*, 40(2), 237-255.
- Weston, E. H. (1982), *After the Dance: A report from 1982 Conference on Career Transition for Dancers*, New York: 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IOTPD) 홈페이지, www.iotpd.org
- Career Transition For Dancers (CTFD) 홈페이지, www.careertransition.org
- Pacific Northwest Ballet (PNB) 홈페이지, www.pnb.org
-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cdcenter.or.kr